

## 외국인이 본 삿포로의 여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조노흐 막심이라고 합니다. 2011 년 8 월부터 국제교류원으로서 삿포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삿포로에 대해서는 오기 전부터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와서 보니 확실히 자연의 혜택을 받아 일본의 무더운 여름 이미지와는 다르게 선선해서 지내기 편한 곳입니다. 여름이 되면 삿포로는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로 활기가 넘쳐 ‘매일매일이 축제’와도 같습니다. YOSAKOI 소란축제, 라일락축제, 퍼시픽뮤직페스티벌 등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 곳에 온 지도 1 년이 다 되어가 삿포로의 여러 모습들을 봐 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감동한 여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삿포로의 여름에 가장 감동받은 것은 바로 ‘YOSAKOI 소란축제’입니다. 브라질 카니발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로 저 역시 가장 멋진 퍼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만, YOSAKOI 소란 퍼레이드를 직접 보고 나서 ‘브라질 카니발에 필적하는 축제이다!’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춤추고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거나 음악을 듣고 있으면

절로 춤추고 싶어집니다. 저는 춤은 잘 못추지만 춤추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 준비, 리허설 등을 통해 같은 감동을 맛보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준비로 꽤 힘들겠지만 힘을 합쳐 극복해낸다면 틀림없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저에게 있어서 삿포로는 그야말로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7 월이 되면 오도리공원에는 마치 우주선같은 아주 크고 둥근 텐트가 출현합니다. 이것은 매년 7 월에 개최되는 삿포로시티재즈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처를 산책하기만 해도 텐트에서 울려퍼지는 아름다운 음악소리에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삿포로시티재즈 외 또 하나의 음악 이벤트인 퍼시픽뮤직페스티벌 덕분에 삿포로는 음악 애호가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이벤트가 ‘비어가든’입니다. 삿포로에 있어서 맥주는 그 이름 자체의 맥주가 있을 정도로 애착을 갖고 있으며 홋카이도의 안심하고 안전한 싱싱한 식재료와도 궁합이 뛰어납니다. ‘맥주와 함께 맛있는 요리를 먹으며 대화를 즐긴다’ 이런

시민들의 모습을 거리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또한 삿포로의 여름 풍물시입니다. 오도리공원 뿐만 아니라 스스키노, 삿포로역 남쪽출구 광장, 삿포로팩토리, 호텔 등 여기저기에서 맥주를 한 손에 들고 친구, 가족들과 대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깜짝 놀랐냐구요? 이렇게 큰 규모의 비어가든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작년 8월 삿포로에 와서 삿포로시민들은 축제를 정말 좋아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올해 또 다시 여름이 자아내는 미소에 둘러싸여 확실히 삿포로 사람들은 정말 해맑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삿포로 시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마을을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며

모두 함께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밤에도 활기 가득한 오도리공원을 걷고 있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인사를 건네와 얼마나 기쁜 지 모릅니다.

앞으로 점차 더위가 누그러지면서 가을이 찾아와도 삿포로에는 계속해서 많은 이벤트가 열립니다. 먹고 걸으면서 맛있는 삿포로를 즐길 수 있는 5일 간의 ‘삿포로타파스’, 홋카이도의 음식 쇼케이스 ‘삿포로오템페스트’, 전세계로부터 많은 단편영화가 모여드는 ‘SAPPORO 단편 영화제’가 열립니다. 여러분, 삿포로에 오셔서 삿포로만이 갖는 매력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9월의 이벤트 일람은 이곳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welcome.city.sapporo.jp/event/09>